

부산 지역방송 3사 메인뉴스 모니터 결과

모니터 기간: 4월 1일~ 4월 30일

모니터 대상: KBS부산<뉴스9>, 부산MBC<뉴스데스크>, KNN<뉴스아이>

정리: 부산민언련 모니터팀

4월 한 달, 부산에는 주목해야 할 현안이 많았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노후원전을 폐쇄 하자는 시민여론이 높아졌고, 동부산관광단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세월호 1주기와 '성완중 리스트'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의혹은 지역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사안이었다. 부산민언련 모니터팀은 지역방송3사의 메인뉴스가 이런 현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기획 모니터하였다.

▶ 지역현안 제대로 다루지 못한 가운데 부산 MBC의 지속적인 고리원전 취재 돋보였다

▲ 4월 중 주요 3가지 현안에 대한 방송사별 보도 횟수			
	KNN	MBC	KBS
고리원전	6	13	8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8	16	18
성완중리스트 부산시장 언급	3	1	2

먼저 고리원전 관련 보도는 KBS부산이 8건, 부산MBC 13건, KNN 6건이었다. 기자 리포트는 KBS부산 4건, 부산MBC 5건, KNN 4건이었다. 부산MBC가 보도 횟수와 리포트 수가 가장 많아 고리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는 현재 상황과 추후 정책결정과정을 안내하는데 비해, 부산MBC는 기자 리포트에서 “대한민국 원전 정책의 중심에 부산시가 서게 됩니다. 더 이상 한수원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주도적인 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등 고리1호기 폐로에 무게를 실어 지역여론을 반영하였다.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관련 보도는 KBS부산 18건, 부산MBC 16건, KNN 8건이었다. KBS부산과 부산MBC의 보도량이 많았다. 그러나 ‘도시공사 직원이 구속되었다’, ‘이용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등 검찰의 수사 과정을 나열하기만 할뿐 ‘동부산 롯데몰 비리’ 사건의 전체 구조와 사회적 의미를 해설하기에는 부족했다. 마치 사건·사고를 나열하는 인상을 주었다. 다만 KBS부산이 <‘비리의 온상’ 전락>(4/28)에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추진되어 온 10여년의 과정을 정리하고 사업의 무리함을 짚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전국적인 빅이슈였던 성완중 리스트에 부산시장이 언급되었지만 지역 뉴스에는 관련 소식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KBS부산이 2건, 부산MBC가 1건, KNN이 3건을 보도하는데 그쳤다. KNN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을 같이 다루었고, 부산MBC는 한 건의 뉴스를 내면서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서병수 현 부산시장의 해명을 같이 들어 책임소재를 흐리게 했다. 4월 10일 ‘성완중 리스트’ 부산시장 언급 보도가 나온 첫 날, KBS부산과 부산MBC 뉴스의 첫 꼭지는 ‘부산발 캐슬여객선이 돌고래와 충돌했다’는 뉴스였다. 보도량 뿐 아니라 내용 역시 아쉬웠다. 서병수 시장의 ‘황당하다’ ‘국회에 출석하라고 하면 하겠다’ ‘너물 받을 이유가 없다’는 해명을 전달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취재는 없었다. 끓어있던 불법 정치 자금 문제가 불거진 사건임에도 진실 규명 보다는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될 것으로만 전망했다. ‘지역

정가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4/10, KNN 앵커멘트) ‘부산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4/10, 부산MBC 기자리포트)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 다시 발목을 잡히고 있다.’(4/20, KBS부산 앵커멘트)는 등 사건 초기부터 향후 정치판세, 정확히 말해서 지역의 여권 정치세력을 걱정하는 모양새였다.

지역방송 3사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사고 후 관계자나 기관의 공식해명, 검찰의 수사 과정을 엮어내는 평면적인 보도가 많았다. 현안에 대한 해설이나 여론형성에 도움이 될 문제제기는 찾기 힘들었다.

▶ ‘병원, 금융, 건설사업’ 홍보성 기사 많고

행정관련 기사 보도자료 인용 두드러져

해운대 엘시티, 북항재개발 마리나 사업 등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만을 제시하는 기사가 많았다. 같은 보도자료를 인용한 듯 기사들의 제목마저 엇비슷했다. 특히, 부산MBC의 <북항재개발 마리나사업 좌초 위기>(4/23),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좌초 위기>(4/23)와 KBS부산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좌초 위기>(4.23), <부산항대교 불꽃쇼 안전문제로 무산 위기> (4/24) 등의 기사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좌초’, ‘무산’이라고 표현했는데, 마리나 사업이나 불꽃쇼 자체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시행하는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중단이 곧 부정적인 것인 양 제목을 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해 보였다.

홍보성 기사도 눈에 띄었다. 부산MBC 뉴스에는 외국인 의료 관광이나 건강 정보와 연계하여 병원의 등장이 빈번했고, BNK금융그룹도 자주 언급되었다. KBS부산은 부산시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또 일자리 정책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양선박편드 등과 관련하여 경제 관련 단신이 많았다. 대부분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평면적인 보도였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비판 등은 없는 것이 아쉬웠다. KNN은 자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업무협약에 관련된 뉴스가 종종 눈에 띄었다. 이 뉴스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보다 해당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를 위한 성격이 짙어 공중파 뉴스로는 적절하지 않았다.

▶ 부산MBC의 지속적인 고리원전 보도, KBS부산의 삼정더파크 산림훼손 고발 보도, KNN의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공적예산 활용 제안 보도는 공익적이었다

각 방송사별로 공익성이 돋보이는 기획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KBS부산은 <삼정 더파크, 대규모 산림 훼손 의혹>(4/14)을 시작으로 4회 연속 삼정더파크의 산림훼손 사실과 부산시가 이를 눈감아 준 의혹이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환경훼손 사실을 고발해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 부산MBC는 고리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돋보였다. 한편, KNN의 <부산 교통카드 잔액 “수 백 억 원 잠만 잔다.”>(4/23)는 지역 이슈 발굴 측면에서 눈에 띄었다.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취재하고, 부산의 경우 카드회사가 잔액을 보유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음에도 시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보도 이후 부산시가 교통카드 잔액 회수에 나서 시민들에게 이익을 돌려 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방송사별 세부 모니터 결과는 별첨합니다.

KBS부산 뉴스 모니터 결과

모니터링 기간: 4월 1일~ 4월 30일
프로그램: <KBS부산 뉴스9>

삼정 더파크 산림훼손 문제제기 적절해 <삼정 더파크, 대규모 산림훼손 의혹> (4/14, 이준석 기자)에 이어 <산림훼손 ‘눈 감았나?’> (4/15, 김홍희 기자), <삼정 더파크, 부산 시 땅에 불법 등기>(4/17, 이준석 기자), <환경단체, 더파크 산림훼손 검찰 고발>(4/23) 연속 보도를 통해 삼정 더파크의 불법 산림훼손 사실과 이를 부산시가 눈감아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정에 대한 특혜와 환경 훼손 사실을 발굴해 지역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규명보다 감싸기 먼저 ‘성완중 리스트’에 부산시장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KBS부산은 두 차례만 보도했다. <서병수 “황당한 일... 돈 받은 적 없어”>(4/10)는 기자 리포 없이 세 번째 꼭지로 보도되어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 비중이 적었다. <“국회 출석해야”...서병수 “언제든지”>(4/20)도 단신으로 8번째 순서에서 보도했다. 앵커는 ‘야당이 ‘성완중 리스트’에 오른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또 다시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 시장 측을 두둔하는 듯해 적절하지 않았다. 이후로 ‘성완중 리스트’에 관련해서 서 시장이 언급된 뉴스는 없었다. 같은 기간 서병수 시장은 <부산주공, 드디어 U턴>(4/21), <서병수 시장, 울산시청서 ‘상생특강’>(4/22) 등에서 시정을 펼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시정소식 많지만 보도자료를 옮긴 듯해 단신들 중 상당수가 부산시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 개발, 펀드 조성 등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뉴스였다. <젊은 열정! 중국시장 개척>(4/28), <인재와 기술로...TNT2030플랜발표>(4/23) 등 일자리 창출 뉴스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종종 등장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어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 시나 기관의 보도자료를 옮긴 듯 성과의 규모를 알리는 평면적인 뉴스였다. <부산 여성고용 ‘꿀찌’ 수준>(4/10) 정도가 현재를 짚어보는 리포트였다. 앞으로 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점검하는 심층해설 기사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부산시나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등이 보도된 뉴스 목록				
날짜	순서	제목(리포트 여부(R))	내용	비고
4/1	9	부산시, “올 들어 일자리 3만7천개 창출”	부산시 일자리창출 상황보고회 발표내용	부산시의 취업, 관광수익 확대 노력을 전달
4/6	12	부산, 울산시 관광발전 기획단 공동 운영	부산시와 울산시의 관광부서와 여행사 관계자로 구성함	
4/9	11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정 운영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	
4/14	8	영도구 하리항에	부산시가 국비로 추진. 앞으로 미포, 송	

		‘해상 낚시 복합타운’	도 등 8개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활용.	
4/21	6	대학생-소상공인 상생 협력효과 특특(R)	부산시가 추진한 새 가게 운동.	
4/23	7	인재와 기술로... ‘TNT2030플랜’ 발표	부산시가 국비로 추진.	
4/27	4	의료관광쇼크, 중국환자 유치로 극복(R)	부산시 의료관광팀장 인터뷰	
4/28	4	초대형 이벤트로 중국 잡기(R)	부산시, 중국친화도시 선언	
4/28	6	사물인터넷 확대, 일자리 창출 모색	학술대회 개최	
4/28	11	동남권 청년고용 활성화 워크숍 열려	부산시 등 자치단체 일자리 담당자와 동남권 대학의 취업지원과 고용노동부 참여	
4/29	3	‘맞춤형 일자리’ 창출(R)	부산시가 추진하는 경로당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청년일자리 소개	
4/1	10	“금융클러스터 생산유발효과 2조8천억”	동의대와 부산은행의 공동연구	
4/5	2	금융단지 뭉치면 유발효과 3조(R)	4월1일에 단신으로 보도했는데, 같은 내용을 리포트로 만들어 강조.	
4/17	5	글로벌 해양펀드 가시화(R)		금융관계 뉴스
4/29	4	해운업계, 한국해양보증에 상반기 100억 출자		
4/29	12	부산은행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지원”		
4/22	12	기보-부산경남은행 ‘창조경제’지원		
4/1	11	신세계면세점, ‘지역기업 입점’ 협약	부산관광공사와 신세계면세점의 계약	
4/9	10	이전 공공기관 대상 MICE 유치 설명회	부산관광공사와 벅스코가 개최	부산관광공사 뉴스
4/6	6	2020도쿄올림픽 특수, 부울경 상생협력 전기로!(R)		
4/23	5	포상관광단 잡아라(R)	부산관광공사. 부가세 환급과 출입국 절차개편이 과제.	
4/4	3	신항 배후단지 외국인 직접투자 천억 돌파	부산항만공사. (가동중 사업체 고용인원 2800여명.)	
4/7	12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첫 채용설명회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양수산인력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마련.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의 뉴스
4/9	12	기장군 청장년 일자리 박람회 열려	에어부산, 삼정 등 업체 참여	
4/18	6	대체 인력채용 지원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사업	
4/28	5	젊은 열정! 중국시장 개척(R)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과 동명대 총장 인터뷰.	

▲ 일자리창출 뉴스 속 서병수 부산시장 등장 사례



<인재와 기술로, 'TNT2030플랜' 발표(4월23일자)>



<사물인터넷확대, 일자리창출모색(4월28일자)>



<젊은 열정! 중국시장 개척(4월28일자)>



<초대형 이벤트로 중국잡기(4월28일자)>

공익성에 걸맞은 보도 <특수학교서 '석면' 대거 검출>(4/7, 이준석 기자)은 검사를 한 9곳 특수학교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 학교에 오래 다녀야하는 장애학생의 특성상 유해한 학교환경은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교육청의 태도를 지적하는 보도였다. <부산시, 문화진흥 뒷짐>(4/20, 박선자 기자)는 출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없어 준립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문화단체들을 취재하고 부산의 문화행정이 조직개편에만 골몰해 지역 예술인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음을 진단했다. 이 보도들은 문제가 일어난 현장을 담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까지 지적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에 걸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관박이 아트페어> <부산시 문화관광 인사행정 난맥상> 등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타사에 비해 깊이가 있었고, <비리의 온상 전략>, <형제복지원 해산하나?>, <출석부 조작 지원금 꿀꺽> 등의 기사는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

모니터팀이 뽑은 <4월의 좋은 기사>

- <삼정 더파크, 대규모 산림 훼손 의혹> (4/14, 이준석 기자)
- <산림훼손 '눈 감았나?'> (4/15, 김홍희 기자)
- <삼정 더파크, 부산시 땅에 불법 등기> (4/17, 이준석 기자)
- <환경단체, 더파크 산림훼손 검찰 고발> (4/23)

부산MBC 뉴스 모니터 결과

모니터링 기간: 4월 1일~ 4월 30일

프로그램: <부산MBC 뉴스데스크>

고리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취재 고리 원전에 대해 4월 한달 KBS부산은 8건, KNN은 6건 보도에 그친 데 비해, 부산MBC는 12건을 보도했다. MBC가 보도 횟수와 리포트 개수가 가장 많아 고리원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취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는 현재의 상황과 추후 정책 결정과정만을 안내하는데 비해, 부산MBC는 기자 리포트에서 “대한민국 원전 정책의 중심에 부산시가 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한수원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주도적인 결정을 할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등 고리 1호기 폐조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축소”에 정치권 반발>(4/2)에서는 영광의 한빛원전은 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보다 더 넓은 30km로 결정했다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 설득력을 더했다. <물 전문가 해수담수화 시설 견학... 반대주민 1인 시위>(4/14), <“해수담수화 수돗물 요오드-131 불검출”>(4/15)은 단신으로 처리했는데, 좀 더 기획력을 발휘해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 날짜별 각 방송사 고리원전관련 보도 목록 (기사제목 뒤의 (R)은 기자가 리포트한 보도)						
날짜	순서	MBC	KBS		KNN	
4/1	1	고리원전 또 화재, 커지는 불안감(R)	1	고리3호기 화재 “이상징후 있었다”(R)	1	아찔한 원전 화재, “이상징후 있었다”(R)
4/2	5	"원전 비상계획구역" 축소에 정치권 반발(R)	2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0-21km안확정...반발(R)	6	방사선 비상구역, 결국 최소범위 확정(R)
			11	'고리3호기' 화재 원인 다음주 초 발표		
4/4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수정 요구				
4/6	5	해수담수화 수돗물 국제기관 테스트 통과(R)	2	방사성물질 “불검출 됐지만...”(R)		
4/8	7	시민단체, '고리1호기 폐쇄' 여야대표 면담				
4/9	6	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결정				
4/10					9	고리원전 갑상선암 피해 첫 공판
4/14	10	물 전문가 해수담수화시설 견학...반대주민 1인시위	9	물 전문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견학		
4/15	7	“해수담수화 수돗물 요오드-131 불검출”				
4/17					7	“재연장 또는 폐로” 이달 말 결정(R)
4/18			4	한-일 시민단체, 고리원전 폐쇄 시민행진	5	한일 반핵단체 고리1호기 폐쇄 요구
4/20	6	전력수급계획에 고리1호기 포함 여부 쟁점				

4/21	7	부산시의회 원전특위, 원전정책 토론회	9	“사용후 핵연료” 정책토론회 열려		
4/22	6	‘고리1호기 폐쇄 촉구’ 산업부 항의방문				
4/24	2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제출(R)				
4/27					6	고리1호기 폐로, “이번 주에 결정난다“(R)
4/29	3	고리1호기 폐쇄 갈피 못 잡는 정부(R)	1	고리 1호기 폐쇄... 여전히 안갯속(R)		
	계	총 12건 보도 (기자리포트는 5건)		총 8건 보도 (기자리포트는 4건)		총 6건 보도 (기자리포트는 4건)

중요한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성완중 리스트’와 관련하여 서병수 시장은 단 한 차례 등장했다. <‘성완중 메모’ 의혹 부인>(4/10)은 서 시장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였다. 또 KBS부산과 KNN이 부산시장으로는 서 시장을 인터뷰한 데 비해, 부산MBC는 ‘전 시장인지 현 시장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아직은 신빙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이라고 하고, 허남식 전 시장의 입장까지 같이 보도해 서 시장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분산시켰다. 이후 추가적인 취재는 없어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 진실규명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

동부산 롯데몰 비리 사안은 보도량에 비해서 사건 구조에 대한 규명이나 해설 없이, 검찰의 수사내역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쳐 아쉬운 보도였다. 다만 <‘동부산 비리’ 검찰 수사 어디까지?>(4/30)에서 기자가 뇌물제공 주체를 ‘롯데쇼핑의 조직적 개입으로 볼 것인가’가 주목된다고 언급해 큰 그림을 조망하는 단서를 주기도 했다. 더 주도적인 취재가 이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다.

<전문공기업 뇌물비리 전모 드러나>(4/21)에서는 입주 청탁 브로커에게 거액을 받은 항만공사 ‘황모 전 부사장’, 업체 선정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유명 교수 ‘하모 씨’라며 익명으로 보도하고, 얼굴을 불러 처리했다. 공인이나 다름없는 인물들인데 실명 보도가 필요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스포윈’ 부정적 경비 집행 감사에 적발>(4.17)도 단신으로 그쳤는데, 리포트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았나 한다.

이에 비해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IMO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는 IMO사무총장 후보 6명 최종 등록>(4/1), <IMO사무총장 선거, 본격 선거운동 시작>(4/4)으로 연속 보도하면서 입후보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이야기하는 화면을 내보냈다. 두 리포트는 시간차에도 불구하고 화면구성이 거의 같아 보도가치가 있는지 의아했다.

금융기관, 병원, 지역사업장 홍보성 기사 많아 병원, 금융기관 등 홍보기사가 속속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BNK 금융그룹이 자주 등장했는데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거나 지역공헌 활동, 사세 확장 등 다방면 활동을 부각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 BNK금융그룹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		
날짜	제목	비고
4/1	부산은행, 경남은행 첫 예금상품...수익기부	
4/5	부산은행 영업점 '경기도'진출 본격화	
4/6	BNK금융,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공연 지원	
4/16	제16회 부산문화대상 수상자 선정	부산MBC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4/17	궁중채화 '꽃, 나비를 부른다' 전시회 개최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
4/20	BNK금융그룹, 여자 골프단 창단	
4/29	제16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식 열려	부산MBC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공동주최하는 행사

건강정보나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병원 홍보성 기사도 등장했다. <입원환자 1위 : 척추디스크>(4/1)에는 운전자가 뒷목을 주무르는 연출화면에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등장해서 척추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해 해당 치료법과 병원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총력전>(4/30)에는 일본인 의료관광객이 특정 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회장을 인터뷰 했는데, 병원의 홍보자료를 리포트로 만든 느낌이었다.

▲ 병원 관련 홍보성 기사		
날짜	제목	비고
4/1	입원환자 1위 '척추 디스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인터뷰
4/5	러시아 환자 급감... 의료관광 '타격'	부산시 의료관광팀장 인터뷰 부산시의 전략과 지원 주문.
4/30	외국인환자 유치 총력전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협회장 인터뷰

<황사특수 잡아라>(4/5)의 경우, 황사철에 선글라스, 공기청정기, 삼겹살, 공기청정식물 등의 매출이 오르거나 관심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화면에 등장하는 매장이 모두 신세계 센텀시티점이었고 해당 백화점 마케팅팀장이 인터뷰까지 하여 홍보성이 짙었다.

이외에도 에어부산 등 저가항공 관련 뉴스, 르노삼성 등 자동차제작 및 부품 업체 뉴스, 지역 대학 관련 소식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고, <제3회 세정 사회복지사대상 시상식>(4/1), <'부산 스포츠레저 아웃도어 위크' 개막>(4/9), <패션그룹 형지, 물류정보센터 개설>(4/10), <르노삼성차 '이우환 공간' 후원>(4/13), <에어부산, 제주항공 저비용항공사 이익률 1위>(4/13), <한진중, 초대형 '컨선 6척 수주... 1조원 효과>(4/20), <시원공익재단, 지역 복지관 교류행사 마련>(4/30)처럼 단신에서 지역의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느낌을 주는 기사들이 있었다.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감시 부족 대형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부실 위험성을 따지고 알려야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보도들도 있었다. <101층 엘시티 국내 시공사와 새 계약 추진>(4/7), <해운대 LCT, 포스코가 짓는다>(4/20)는 시행사 측이 제작한 CG를

활용하여 101층 높이의 화재성을 부각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이 보장돼 사업추진에 청신호 켜졌다’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만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승인이 나기까지 특혜 의혹과 환경파괴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점검은 없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마리나사업 좌초 위기>(4/23),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좌초 위기>(4/23) 도 상황 전달 위주였고, 투자사에 끌려 다닌 부산시 및 항만공사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다. ‘좌초’라는 표현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마리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 측의 입장을 대변한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 차원의 신규사업 실효성 검토 공익적 <교통기반시설 공사...보행권 위협>(4/2, 임선웅 기자)과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다룬 <개통식만 하고 ‘나 몰라라’>(4/3, 윤과란 기자)의 경우, 취재를 계기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했다. <‘장애인 막는’ 부산시민공원>(4/12, 이두원 기자), <곳곳에 쓰레기...말 뿐인 생태공원>(4/21), <시민공원 개장 1년 허울 좋은 ‘명품공원’>(4/23, 김기태 기자)은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화명생태공원, 시민공원과 송상현 광장의 관리 부실 실태를 점검한 기사였다. 공원을 만들고 나서 관리와 활용을 얼마나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를 환기하는 좋은 지적이었다. 이외에도 <공단 내 학교, 악취에 학습권 피해>(4/28), <방치되는 금연거리...보완책 필요>(4/19, 윤과란 기자) 등 우리 주변의 문제를 찾고 지적하는 시도들이 많았다. 다만, 도로교통, 도시환경 등 유사한 주제에 집중해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보도들이 이어졌으면 한다.

화면 구성 다양해 기자가 야구소식을 전할 때는 롯데 유니폼을 입는다거나 자동차 수출 증가추세를 리포트하면서 화면에 자료를 CG로 넣는 등의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연산동 중고차 매매단지 화재현장이나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드론을 활용해 현장을 폭넓게 보여주었다.

▲CG나 헬리캠을 이용한 다양한 화면 구성 사례	
리포트 화면에 CG 활용	드론 활용

- 모니터팀이 뽑은 <4월의 좋은 기사>
- <고리원전 또 화재, 커지는 불안감> (4/1, 박준우 기자)
 - <원전 비상계획구역 축소에 정치권 반발> (4/2, 이만홍 기자)
 - <고리 1호기 폐로 축구 결의안 제출> (4/24, 이만홍 기자)
 - <고리 1호기 폐쇄 갈피 못 잡는 정부> (4/29, 박준우 기자)

KNN 뉴스 모니터 결과

모니터링 기간: 4월 1일~ 4월 30일

프로그램: <KNN 뉴스아이>

주요 지역현안은 어디? 4월의 부산지역 주요현안이라 할 수 있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성완중 리스트’ 부산시장 언급에 관해 보도한 건수를 비교해보면 KNN의 보도건수가 타사의 절반 수준이다. ‘성완중 리스트’ 기사의 경우, KBS부산과 부산MBC는 다루지 않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식까지 포함하여 5건 보도하였다. <KNN 뉴스아이>가 전반적으로 기자 리포트가 많고 단신은 적고, 총 기사 꼭지수가 적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하겠다.

▲ 4월 중 주요 3가지 현안에 대한 방송사별 보도 횟수			
	KNN	MBC	KBS
고리원전	6	13	8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8	16	18
‘성완중 리스트’ 부산시장 언급	3	1	2

지역 이슈에 주목 4월 둘째 주 일본군 위안부와 역사왜곡 문제, 4월 넷째 주의 교통카드 잔액 환수에 관한 뉴스는 타사는 주목하지 않은 이슈를 발굴한 것이다. 특히, 교통카드 잔액 환수 문제 기사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하고, 부산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대안을 제시해 완결성이 있었다.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이슈로 부각했고, 보도 후에 부산시가 교통카드 잔액 환수에 나서기로 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잠자고 있는 시민들의 쌈짓돈을 복지에산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공익적 이익에 부합한다.

▲ 지역이슈 발굴 뉴스 사례			
날짜	제목	내용	비고
4/6	위안부 피해자, 잊지 않겠습니다	1천명 인강때 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통영 강구안을 이원 생중계하여 참여 시민 인터뷰	일본군 위안부 및 역사왜곡 관련 뉴스
4/7	“방치되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	대연동 역사기념관이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되었지만 개관이 지연되는 이유를 취재하고, 재단과 정부의 법적 공방과 내부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짚어줌.	
4/8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증명되나”	일본군 문서 중에 “연행”이란 표현이 사용된 사료를 발견했다는 소식. 한일문화연구소장 인터뷰.	
4/23	부산 교통카드 잔액, “수 백 억 원 잠만 잔다”	부산 내 방치된 교통카드 속 잔액은 400억원 규모. 현재 카드회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5년 이상은 보관할 명분이 없다. 시가 회수해서 복지예산으로 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관련 뉴스
4/24	교통카드 눈먼 돈 환수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교통카드 잔액	

	“시민운동 확산”	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취재하고, 부산시가 협약개정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꼬집음.	
4/30	“부산시 교통카드 잔액 환수 나서”		

자사 홍보성 기사, 공중파 뉴스에 어울리지 않아 자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업무협약 소식을 공중파를 통해 내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해법 찾겠다”>(4/11)는 뉴스는 자사 시사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 자사 홍보성 기사		
제목	날짜	비고
아프리카 현대미술, 부산에 왔다	4/1	KNN 창사 20주년 기획전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해법 찾겠다”	4/11	KNN파워토크 예고 느낌
<넥센월석재단, 부산국제외고에 장학금 전달	4/13	자사 행사
KNN-골든블루 ‘골든블루홀’ 업무협약	4/15	자사의 업무협약 소식

흥미만 중시하는 것은 문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뉴스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전반적으로 뉴스 순서에서 흥미를 끄는 범죄사건, 사고나 날씨, 야구 소식 등이 앞으로 배치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사회문제는 뒤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제목도 당장 눈길을 잡아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편인데, 지나칠 경우 비본질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경박한 느낌을 준다.

▲ 흥미성 기사가 앞으로 배치된 경우			
제목	내용구분	날짜	순서
겨울 지난 지 언젠데, 곳곳에서 쿨쿨쿨쿨	날씨	4/2	1
함께 돌아온 ‘강민호와 손민한’	스포츠	4/5	1
인맥 사기 통하는 사회, “나 MB랑 친해”	사건사고	4/7	1
“고객 돈이 내 돈” 70억원 ‘꿀꺽’	사건사고	4/8	1
“깜짝 마!” 뛰는 도둑 위에 나는 경찰	사건사고	4/8	2
광란질주 택시강도 “시민이 붙잡았다”	사건사고	4/9	1
철도 행각 CCTV에 ‘딱 걸렸네’	사건사고	4/11	1
항공사 기장까지, “김해공항 금괴 밀수 급증”	사건사고	4/13	1
층간소음 갈등, “접착제로 보복”	사건사고	4/15	2
무려 150인분... “전설의 돛돔 잡혔다”	해양수산	4/17	1
동네폭력배, “조폭처럼 직접 관리한다”	사건사고	4/19	1
아찔한 옹벽 붕괴, “통학로 참사 날 뻔”	사건사고	4/20	1
“부산사람들은 외제차를 좋아해?”	생활경제	4/21	1
만선의 꿈, “은빛 멸치가 돌아왔다”	해양수산	4/24	1
경남 합천 30도 “덥다 더워”	날씨	4/26	1

▲ 자극적인 기사 제목		
제목	날짜	비고
화난 시장, “일자리 결과물 가져오라!”	4/2	
동부산 비리 “검은 돈 앞에 수치도 잊었다”	4/6	
“우리 아파트는 비리 백화점”	4/8	
총선, “낙동강벨트 벌써 후끈 달아올라”	4/13	
뻔뻔한 보이스포싱, ‘승리의 V까지’	4/15	
과일시장 점령군, ‘수입과일’	4/19	
“추억의(?) 담배 밀수 부활했다”	4/20	
신항 배후단지, “너물 잔치 벌였다”	4/21	
경남 도민체전... “경남 폭력체전?”	4/27	
부산경찰, “무기수 한명에 농락당했나?”	4/28	
지역대학 평가 “나 지금 떨고 있니?”	4/28	
어린이날, “유통가는 완구 전쟁 중!”	4/28	

단순전달 넘어 검증, 해설 많아져야 주우진 기자와 박명선 기자의 리포트가 돋보였다는 평을 들었다. <해경, 현장 대응력 점점 ‘글썸’>(4/9, 박명선 기자)의 경우, 기자가 대피훈련 현장에 배를 타고 참여하여 실제로 대피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허점을 찾아냈다. <분노조절장애, “결국은 모두 피해자”>(4/10, 주우진 기자)는 전날 보도한 택시강도 사건의 범인이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싶었다. 자극적인 단순범죄 기사에서도 사회적 함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다만, <고위층 부패, “의병정신에서 배워라”>(4/21)는 ‘성완중 리스트’로 인해 불거진 사회지도층의 부패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꼭지인데, 시도는 좋으나 내용전개에 비약이 있고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어색했다. 그리고 ‘성완중 리스트’ 문제를 범정치권, 사회지도층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해서 몰타기 식 해결안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모니터팀이 뽑은 <4월의 좋은 기사>

- <부산 교통카드 잔액 “수 백 억 원 잠만 잔다.”> (4/23, 주우진, 김상진 기자)
- <교통카드 눈 먼 돈 환수 “시민운동 확산”> (4/24, 김상진 기자)
- <속보- “부산시 교통카드 잔액 환수 나서”> (4/30, 김상진 기자)

1) 고리원전

<KBS>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	1	고리3호기 화재 “이상징후 있었다”	(R)장성길
4/2	2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0-21km안 확정... 반발	(R)이철재
4/2	11	‘고리3호기’ 화재 원인 다음주 초 발표	-
4/6	2	방사성물질 “불검출 됐지만...”	(R)강지아
4/14	9	물 전문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견학	-
4/18	4	한-일 시민단체, 고리원전 폐쇄 시민행진	-
4/21	9	“사용후 핵연료” 정책토론회 열려	-
4/29	1	고리 1호기 폐쇄... 여전히 안갯속	(R)장성길
계		총 8건 보도	4/8

<MBC>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	1	고리원전 또 화재, 커지는 불안감	(R)박준오
4/2	5	"원전 비상계획구역" 축소에 정치권 반발	(R)이만홍
4/4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수정 요구	-
4/6	5	해수담수화 수돗물 국제기관 테스트 통과	(R)배범호
4/8	7	시민단체, ‘고리1호기 폐쇄’ 여야대표 면담	-
4/9	6	울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결정	-
4/14	10	물 전문가 해수담수화시설 견학...반대주민 1인시위	-
4/15	7	“해수담수화 수돗물 요오드-131 불검출”	-
4/20	6	전력수급계획에 고리1호기 포함 여부 쟁점	-
4/21	7	부산시의회 원전특위, 원전정책 토론회	-
4/22	6	‘고리1호기 폐쇄 촉구’ 산업부 항의방문	
4/24	2	고리1호기 폐로 촉구 결의안 제출	(R)이만홍
4/29	3	고리1호기 폐쇄 갈피 못 잡는 정부	(R)박준오
계		총 13건 보도	5/13

<KNN>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	1	아찔한 원전 화재, “이상징후 있었다”	(R)김민욱
4/2	6	방사선 비상구역, 결국 최소범위 확정	(R)김민욱
4/10	9	고리원전 갑상선암 피해 첫 공판	-
4/17	7	“재연장 또는 폐로” 이달 말 결정	(R)진재운
4/18	5	한일 반핵단체 고리1호기 폐쇄 요구	-
4/27	6	고리1호기 폐로, “이번 주에 결정난다”	(R)김민욱
계		총 6건 보도	4/6

2)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KBS>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	2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 어디까지?	(R)황현규
4/2	3	부산도시공사, 전방위 금품 수수	(R)황현규
4/6	5	“도시공사 직원 2억원대 뇌물 수수”	-
4/7	9	‘동부산 비리’ 롯데몰 前현장소장 체포	-
4/9	8	‘동부산 비리’ 롯데몰 전 현장소장 영장	-
4/15	9	검찰, ‘롯데몰’ 압수수색... 3명 입의동행	-
4/16	5	롯데몰 동부산점 입대 특혜 등 집중조사	-
4/17	2	롯데몰 입점... 특혜 의혹 조사	(R)장성길
4/20	1	‘시장 수십억대 땅 투기’... 공무원 연루의혹	(R)장성길
4/21	1	前 군수 부동산 투기 연루	(R)장성길
4/21	2	이종철 전 도시공사 사장 자택 압수수색	
4/22	3	롯데몰 비리 의혹 현직 경찰 체포조사	
4/23	1	이종철 前 도시공사 사장 내일 소환	(R)황현규
4/24	1	뇌물수수 집중 조사... ‘기소 방침’	(R)황현규
4/25	1	긴급체포... 조만간 영장	
4/26	4	이종철 전 도시공사 사장 영장 청구	
4/27	2	이종철 前 사장 구속	(R)황현규
4/28	3	‘비리의 온상’ 전략	(R)장성길
계		총 18건 보도	9/18

<MBC>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2	2	검찰 "동부산관광단지 전반 수사"	(R)조재형
4/6	1	‘푸드타운 비리’ 수익 대 돈 어디로?	(R)조재형
4/7	4	롯데몰 전 건설현장소장 뇌물 공여 혐의 체포	-
4/10	8	부산도시공사 직원 금품수수혐의 영장 청구	-
4/11	6	뇌물혐의 부산도시공사 직원 영장 기각	-
4/15	4	부산지검, 롯데몰 동부산점 압수수색	-
4/16	4	특혜 대가 ‘롯데몰 동부산점’ 입점권 제공 혐의 조사	-
4/17	6	입찰정보 받고 돈 건넨 3명 기소	-
4/21	1	검찰 ‘동부산 롯데몰’ 관련 비리 정조준	(R)조재형
4/22	11	롯데몰 특혜 입차 혐의 기장경찰서 간부 체포	-
4/23	4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내일 소환	(R)조재형
4/24	1	前 도시공사 사장 소환 ‘동부산’ 수사 어디로...	(R)조재형
4/25	2	이종철 전 도시공사 사장 이르면 내일 영장	-
4/26	3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4/28	4	이종철 전 사장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구속	-
4/30	4	‘동부산 비리’ 검찰 수사 어디까지?	(R)조재형
계		총 16건 보도	6/16

<KNN>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	7	동부산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추가 체포	-
4/6	1	검찰, “관가 로비수첩 확보했다”	(R)진제운
4/6	2	동부산 비리 “검은 돈 앞에 수치도 있었다”	(R)주우진
4/7	10	검찰, 동부산 쇼핑몰 건설 관계자 체포	-
4/22	8	검찰, 롯데몰 비리 의혹 경찰 체포	-
4/25	1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긴급체포	(R)박철훈
4/28	11	부산도시공사 전 사장, 혐의 추가	-
4/29	9	박인대 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계		총 8건 보도	3/8

3) 성완중 리스트 서병수 부산시장 언급

<KBS>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0	3	서병수 “황당한 일... 돈 받은 적 없어”	-
4/20	8	“국회 출석해야”... 서병수 “언제든지”	-
계		총 2건 보도	0/2

<MBC>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0	2	‘성완중 메모’ 의혹 부인	(R)조재형
계		총 1건 보도	1/1

<KNN>

날짜	보도순서	제목	리포트여부
4/10	1	부산 경남, “그 사람 모른다” “황당하다” (서병수 등장)	(R)김성기
4/10	2	지역정가 “과장 어디까지 갈지?” (서병수 언급)	(R)김건형
4/13	6	홍준표, 서병수 거둬 부인, “수사협조하겠다”(서병수 등장)	
4/28	8	검찰, 홍 지사 일정 담당자 내일 소환 -	
4/29	6	검찰, 홍준표 지사 일정담당 소환	(R)이오상
계		총 3건 보도(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사까지 포함하면 5건)	3/5